



<교육실습 소감문>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될
4주 간의 소중한 경험**

과 목 명:	교육 실습
담당교수:	배상훈 교수님
실습기관 :	(서울) 동명여자고등학교
실습기간 :	2015.03.30. ~ 2015.04.24.
학과학기: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5기
학 번:	
성 명:	
제 출 일:	2015.04.24

■ 긴장과 설렘의 교육실습 시작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길지만 짧고, 짧지만 긴 4주간의 교생 실습 기간을 가졌습니다. 실습 전, 학교에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잔뜩 긴장한 채로 담당 선생님을 기다리며 어떠한 전달 사항이 있을지,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머리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하며 정자세로 앉아있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다시 긴장될 정도였습니다. 교육 실습에 나오기 전 예상했던 수업에 관한 일정이나 학급 생활 외에 자율학습감독, 교문 및 등교지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4주간의 일정이 걱정이 되면서도 내가 맡을 학급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실습 전날,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며 계속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을 만나는 첫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이러한 눈은 저의 긴장감을 대변하듯 하루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아이들 앞에 서서 첫 인사를 나눌 때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십분 이해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인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런 아이들이 무척이나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비록 졸업한지는 7년이나 되었지만 3년 동안 많은 시간 생활했던 모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생실로 사용한 편집실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편집실에 앉아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보고 또 보며 수업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생활도 잘 해내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기대와는 달리 수업 참관보다는 특강 위주의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 특강에서는 교육을 실현하는 주체가 교사가 아닌 학생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어떤 교사가 되어야할지, 앞으로 나는 어떠한 신념을 가져야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라는 책을 소개해주셔서 실습 후 반드시 읽어보기 위해 다이어리에도 작성해놓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특강은 교육 실무와 관련한 것이었는데, 단순히 학교 내 부서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현 교육과정의 내재된 교육 철학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 선생님께 국어 과목을 배웠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되셨음에도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철학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서 '나도 아이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로부장 선생님의 특강을 통해 현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진로'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진로' 과목이 없어서인지 더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그 중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은 상위권, 하위권 아이들이 아닌 중위권의 아이들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급 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눈이 가지 않아 노력을 통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 대한 '공평함'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학급 선생님께서 특수 학급 및 특수 교육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동명여자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 학급이 개설되어 있어 총 21명의 특수 학급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음에 깜짝 놀랐으며,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기초 능력 함양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하며 특수 학급 아이들 뿐만 아니라 원적 학급의 아이들도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특수 학급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수도 없이 거울 보며 연습한 첫 수업

첫째 주 후반부터는 점차 수업 준비를 위해 현직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재학 중 수업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서인지, 그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그 학습 내용을 따라 가는데 급급하였는데, 막상 교생이 되어 내가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며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니 선생님들이 수업을 구조적으로 진행하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어과 수업의 경우 자칫 지루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지문을 읽거나 단순한 설명으로 수업이 그치지 않고 활동지를 활용하거나 판서를 통해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과 함께 당장 수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아이들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니만큼, 한 시간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되고 걱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첫 수업이 학급 담당 반이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아이들과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수업'을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더욱 컸습니다. '차라리 학급 담당 반이 제일 나중에 수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에 대한 준비 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어떤 부분의 수업을 진행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험 기간으로 인해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 없어 다른 학급과의 형평성을 위해 교과서 외 내용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어떤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르쳐주자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수능에 많이 나오는 것과 '고전'이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시조' 부분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시조의 형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지도안을 작성한 뒤, 집에서 동생을 앉혀 놓고 수업 시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시연을 한 결과,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눈 앞이 깜깜하여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시간도 30분으로 수업 시간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시조와 관련된 일화, 혹은 더 보충할 내용을 자습서나 전공 서적을 뒤져가며 열심히 추가하고 동생과 엄마를 대상으로 수업 시연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엄마와 동생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었고, 이를 참고하여 수업에 살을 붙여갈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전날에는 무수한 시연을 했음에도 불안한 나머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50분 내내 수업 시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출석부를 들고 학급 담임 반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내가 진짜 선생님이 된 느낌에 설렘과 동시에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PPT를 띄우며 첫 인사를 건네고 수업 내용을 안내하자 아이들은 큰 소리로 인사하며 대답해주었습니다. 그 때의 아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장장 한 시간 수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점차 수업이 진행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준비한 내용에 관심을 보이며 여러 가지 일화나 역사적 내용에 웃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사히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준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이 넘쳐났습니다.

이후 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첫 시간만 지나면 조금 편안하게 수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매 시간 긴장을 하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초롱초롱함과 밝은 목소리로 인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7반을 수업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준비한 수업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똑같은 학생들은 없기에 같은 내용의 수업이라도 절대 똑같은 수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각 반의 분위기, 대답에 따라 아이들의 다양한 개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교사의 순발력과 대처 능력이 정말 중요함을 앎과 동시에 교사라는 직업에 엄청난 매력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함께 할 수 있어 고마운 아이들과의 시간

학급 운영의 특성 상 조례시간은 함께 하지 못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다른 교생 선생님들보다 비교적 적었습니다. 이에 점심시간과 종례부터 방과 후 수업 전까지는 아이들과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점심을 일찍 먹고 교실에 올라가 아이들을 기다리거나, 종례 시간 종이 울리기 전 교실 앞에서 기다리며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첫인상은 그저 쑥스러워하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던 모습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미리 주신 아이들의 사진 및 명렬표를 통해 익혀둔 이름을 불러주자, 아이들은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하며 궁금해 하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조금씩 친해지려 할 무렵, ‘신체능력검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체능력검사 행사가 학년별로 진행되다보니 우리 반 아이들이 오래 달리기 및 걷기를 진행하기까지 3~4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하여 아이들이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아침에 다리가 아프다고 했던 아이는 괜찮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 학급의 아동이 오래 달리기 및 걷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운동장 6바퀴를 뛰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예전의 담임 선생님께서 “너희는 내가 부모의 마음인 걸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며, 담임 선생님이 된다면 정말 아이들에게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교육 실습의 둘째 주에는 학교 교정 내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는 ‘포토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집에서 DSLR 카메라를 가져와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함께 찍으며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정 내에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렇게 해맑은 모습을 계속 보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사진 찍어요.” “저랑도 찍어요.”하며 이야기할 때에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학습이나 생활 지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과정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예비 교사로서의 길

교육 실습 기간 동안 “학교에 있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빨리 가고 바쁠 것이

다”라는 지도 선생님의 말씀을 실감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조종례 및 수업만 하며 쉬는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수업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학교 내 생활은 쉴 틈 없이 바쁘고, 특히 담임 교사의 업무는 매우 능동적이고 하나 하나 개성 있는 아이들을 어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 인식이 아니라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방향성을 설정해야할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교직 생활을 위해 단순히 전공에 대한 지식 공부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좀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밝고 미소지을 수 있는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